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郎
編輯兼印刷人 崔鳳守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時報社
電話② 1685.1686.1687 8611.8612
(週刊)
一部定價 月二百五十圓

慎言守意念 身不善不行 如是三行除 佛說是得道 (法句經)

李大統領閣下來校

六·二五記念式參席코

李大統領閣下

李大統領閣下는 지난 二十五日 下午 三時四十分 本校를 來訪하고 石造 別館을 爲始한 諸校舍를 視察하시었다

이날 李大統領閣下는 六·二五第八週年記念式에 參席한後 本校를 訪問하여 全副總長의 案內로 石造別館을 비롯한 新築科學館및 雄壯한 大學本部建物의 巡視를 十五分間에 걸쳐 마치고 下午四時頃 離校하시었다

東國法院(稱)大法廷

二十四日市公館서開廷

=沉盛判裁擬模回五第=

法秩序確立에寄與

法에 對한 理解의 未及으로 各種犯罪事件이 意識 無意識間에 이러나는 오늘날 知性에 呼訴 함으로서 보다 健全한 社會建設을 이바지 하고저 本校 法學 徒들이 例年行事로서 開催하고 있는 東國法院(假稱)의 模擬裁判은 今年度에도 第五回째로 지난二十四日(火) 上午九時半부터 市內明洞에있는市公館에서 二千餘 방청객이 殺到한가운데 開廷—。 서울新聞社와 世界日報社및 本社그리고 學生委의 後援으로 開催된 이날 第五回模擬裁判에는 法政大學長 金甲洙敎授 와 金政主敎授等 諸審査委員들의 嚴審裡에 盛大히 開催되었다

模擬裁判은 今年度 第五回 模擬裁判 民事部 法院(假稱)長 李英 (法四)君의 開會辭에이어 法政大學長 金甲洙敎授의 激勵辭가 끝나자 곧 開廷하였다

김갑수 (法四)君의 司會로 進行된 이날 模擬裁判은 三時間에 걸쳐 열리었는데 이날 公判된 事件趣旨는 다음과 같다

"被告人 李乙三이 八·一五當時 越南하여서 울市內에 居住! 六·二五事變當時 父親이 拉致되어 大學二年을 中退 軍에入隊하여 服務 年限을 마치고 除隊後 老母를 奉養해오던中 시골處女를 甘言으로 誘引하여 富利를 目的으로 利用하다가 路上에 選 引等被告事件"으로 告訴 되여이날 法의 審判을받게 된것이다

이날 裁判은 李存淳 (法四)裁判長의 主宰 아래 徐光洙(法四)檢 事의 事件經緯朗讀이 있음 四個大學 代表 辯護士들이 參加하여 論 辯護士들의 눈물겨움과 法理的인 辯論도서 展開되었는데 辯護人들은 本事件은 戰時生 態學을 뒤에 虛龍錦敎授의 考慮하여 無罪 또는 極 刑을 減輕하여주어야 한다고主張—。 判決의 最後 陳述을 듣고 裁判長 으로 나머지 十個月의 연도가 나림으로서 閉廷하게되었다 그런데 이 辯護士들의 熱誠 裁判에는 本校 法院의 模擬裁判에는 비롯한 中央 大 淑大 梨大 校 大學 學 校 參加하여 盛況 裡에 그런데 同模擬裁判의 審査委員名單

入賞者및 審査委員名單

◇入賞者

特等 李載淳(法四)

君 裁判長

一等 李鍾雄(國大法三)

君 檢事

二等 徐光洙(法四)

君 檢事

三等 朴鼎順(法一)

君 辯護人

△審査委員

金甲洙 法政大學長

李存淳 敎授

盧龍錦 敎授

金政主 敎授

大學水上界進三年制壓

優勝旗·銀盃二個等獲得

第四回水上競技大會閉幕

지난 二十日부터 二十二日까지 連三日間에 걸쳐 서울運動場『풀』에서 열린 서울市水上競技聯盟主催 第四回男女學生 水上競技大會에 出場한 男子大學部에서 各校들은 四個 大學 水泳選手 團을 들리치고 勝一 이로써 連三年間을 通하여 卽然 大學水上界 을 掌握하게된 本校水泳班은 同聯盟賞과 盛況 勝旗및 二個의 銀盃를 完全히 그런데 이번 大學部에는 本校를 爲始하여 中央大 新興大等 三個 校가 參加하여 盛況裡 日부터 치열한 熱戰이 展開되었는데 綜合成績을보면 一 二點으로 本校水泳班이 第一位를 찾이 하여 連三 連覇 勝旗 四十六點의 中央大팀이 있다 參加한 本校 選手名單과 種別大會成績은 다음과같다

○男大平泳二百米決勝 二位 金大燦 (東大) 三分十九초五五

○男大背泳二百米決勝 一位 朴周連 (東大) 三分十八초四 二位 성인봉 (東大) 三分五十四초五

○男大自由泳四百米決勝 一位 李관표 (東大) 六分五十九초七 二位 金升珍 (東大) 七分十四초八

○自由型四百米決勝 六分五十九초 一位 金光杓 (東大)

○蝶泳三百米決勝 一位 金一 東國大學校팀 二分四초

學術講演會盛況

27日經濟學會서

本大學校 經濟學會에서는 지난二十七日 本校第十講義室에서 『學術講演會』를 開催하였다 이講演會는 韓國銀行 調査部長 俞昌濟氏를 演士로 신 招請講演會로써 演題는 『韓國財政實情과 產業育成問題』이었는데 期末試驗이 迫到하였는데도 不拘하고 많은 學生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寫經

書提樹

寫經이라는 것은 佛經을 書寫하는것인데 印刷術이 發達하지못한 時代에는 이寫經이 대우 큰 意義를 가지서 寫經의 功德은 높이 稱讚되었었다。

法華經에 보면 五種法師의 功德을 讚揚하고있는데 五種法師는 書寫法師 受持法師 讀經法師 講經法師 解說法師이 어서 이중 書寫法師는 寫經法師를 말한다。 印刷術이 發達된 後에도 實際的으로 寫經의 意義는 減少되었으나 역시 寫經에 대한 傳統的信仰에서 國家의 安泰를 위하여 또는 自己自身의 福樂往生 乃至 菩提를 빌기 위하여 寫經이 여전히 盛行되었다。 國家에는이寫經 을 公的으로일삼는官廳까지 設置되어있다 寫經院이었다。 寫經院은 經을 寫書하는經生, 寫經된 것을 校正보는校生이라든지 또는 寫經된 것을 깨끗이 卷冊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이밖에 寫經에 必要한 붓(筆)과 종이(紙)等을 專門으로 만드는 사람 또는 用達關係 食事關係 等等 그 職分에따라 經生은 置要補되어 여러사람이 있었는데 經生은 佛敎 信仰而과 技術面等의 여러가지 嚴格한 試驗 을 배 通過하여야 하였다。 寫經은 經을 배 껴 淸淨 깨끗이 書寫하여야 하지만 乃至 心的態度가 重要視되어 內衣부터 至部 새옷으로 갈아입고 供奉羅佛하면서 齋戒 하여 神聖한 가운데서 淸淨 하여갔으니 寫經 그 自體가 嚴格한 佛敎儀式이다 書通 寫經하는 것은 종이에 먹으로쓰는 것이지만 또혼이 금가루(金泥)와 은가루(銀泥)로 쓰기도 하였는바 金泥로 寫經된것을 金字經이라하며 銀泥로된것은 銀字經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佛敎信仰의 하나인 寫經이 매우 盛行하였거니와 특히 高麗時代에는 더욱 盛行하였으니 여러寫經院이 公私間에 設置되었으며 또 이밖에 寺刹에서나 個人에서 寫經하는 例가 많았다 그런데 高麗의 寫經에 있어서 特記해야할것은 當時 元나라가 敎次에걸쳐 우리高麗의 寫經僧을 많이 데리고갔으며 또한 종이와 먹을 要求하였던것이니 이것은 高麗의 寫經僧과 종이가 매우 優秀하였기때문이었다 이와같이 寫經面에 있어서도 우리는 高麗佛敎의 世界的 위치를 다시금 認識해야할줄안다

敎育資格賦與等討議

文理系大學長會議서

지난 二十一日 서울 大學敎 文理大에서는 全國 十七個大學校의 文理大學長들이 參席한가운데 『全國文理系大學長會議』가 開催되었다 이날 會議는 上午十時부터 同大學 文理大學長室에서 市內大學 비롯한 地方의 敎育大學 에서 上京한 文理系學長들이 모인 가운데 開會—。 먼저 開會한 入事交換과 歡言의 말이 있은다음 各大學長들의 眞摯한 意見交換과 各 主要案件이 討議되었는데 이날 討議된 主要案件은 다음과같다。

(ㄱ) 現文理系大學의 節 減敎科外의 出身에 도 敎師養成 敎育 師採用에 있어서의 公平한 措置

(ㄴ) 前記問題에 있어서 師大를 敎育大學으로 分離시켜 그곳에서 敎育科目을 履修케하는 問題

(ㄷ) 敎養課程 部運營및 事交換 所屬問題

(ㄹ) 國語敎育强化等에 關하여 文敎當局에 對 한建議等

農村啓蒙會서

會員連絡要望

夏期放學을 앞둔『韓國學生農村啓蒙會』(市內 太平路二街三六所在)에서는 每學期 放學期 利用하여 文敎部側 敎育科目을 履修케하는 問題이지만, 不然이라면 구태여 留學을 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留學을하여 많은 成果를 걷을 수있는 사람은 國內에있어도 同樣의 成果를 거둘수가있다 말하자면 內的欲求가 留學을 必要로한다면 가야되고 갔다와서 留學을 맛보라는 人物은 도 成果가 있겠지만, 虛妄한 街 里의 風潮에 쏠려 무턱, 外國 에 있다고 依하여 留學을 하고 干涉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겠다。 할수가 있는것이다。 當局 이 없는 것은 아니다。 涉外敎育課가 있고 大使館領 事館이 있으면서 敎育課 或은 文化課 보다 많은學 生을 보다 좋은 條件으로 留 學시키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努 力을 하여 왔는지 묻고싶다。 그러한 要에 앞은 更 國內外의 奬學金斡旋이나 條件의 改善을 위하여 어 學費 免除 및 生活費 支給 등에 關하여 留學行政을 富에 阿諂하여 名利를 얻으려고 어떠한 名利를 얻으려고 애쓰는 代身 人品과 才質이 優 秀한 留學할만한 良材를 그냥 주저않게만 失手는 없었는 이러한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몇가지의 前轍을 回顧하여 보면 事 務의 一元化가 그대로 順理的 이 일의 進行을 가져오리라는 믿어지지않는다。 問題의 基 本은 될수 있는限 事務上手續 을 簡便히 하여 自由롭게 많 이 學生이 外遊의 機會를 가 지게 되도록 마련하여야겠다는 點이다。 政府가 留學生에 대하여 할 일은 留學生自身의 힘 으로써는 이루지 못할 여러가 지 障碍를 打開시켜 주고, 扶 助하여 주는 일이고 되도록 留 學이 어렵도록 抑制하고 干涉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正當한 事業이 可能 하게 되려면 于先 涉外敎育에 關한 機構나 公務員의 質量을 向上시켜야 할 것이다。 課長까지를 包含한 敎三名의 一般行 政更가지고는 外國과의 文化交 流는 힘들지 않을수 없다。 廣 汎한 視野와 文化的인 意識을 가진 人士들을 國內外部署에 配 置하여 探長補 短의 文化事業이 크게 이룩되도록 格段의 關心 을 주어지기를 바란다。

全州同窓三十會를 開催

歡迎會

遠征간排球選手團맞고……種別大會신설 借敗

지난十七日午後七時 全州市 二會가열리기前인十三日까지 十七日부터 全北 全州市 八日 午後七時 歡迎會 그라운드에서 열린 第十三回全國男女 團別排球選手權大會에 參加한 全北 排球選手團一行은 始終一貫 模範的인 競技 을 보여 다른 選手들에게 强 烈한 印象을 주었으나 往年의 傳統을 發揮하였으나 惜敗—。 一次 의 對戰에서 惜敗—一次 의 對戰에서 惜敗—一次 勝 의 二十三日 夜間列車便으로 歸 京한바 있거니와 이번 메이날 同 歡迎會에 立한다고하는바 參席한 同窓會員은 다 게바라고 있다는 것과 같다(括弧內는 근 友의를 두텁게 하였다 이歡迎會를 손수 開 催하여 우리 選手들의 疲中等敎育課長) ◇姜哲鎭(全北大學校 敎授) ◇宋俊浩(上同) ◇慮 갑(上同) ◇曺國九(全北高校) ◇金東汶(上同) ◇金永植(上同) ◇朴完植(全北日報社) ◇朴裕植(全北高校) ◇曺明烈(全北南中學校) ◇尹碩欽(市民文具商) ◇李昌煥(市民文具商) ◇金完洙(道山林部) ◇吳明淳(全北日報社 副社長) ◇崔鳳守(全北大學校 總務課長) ◇盧淳鎬(全北道學務 課中等敎育課長) ◇姜哲鎭(全北大學校 敎授) ◇宋俊浩(上同) ◇慮 갑(上同) ◇曺國九(全北高校) ◇金東汶(上同) ◇金永植(上同) ◇朴完植(全北日報社) ◇朴裕植(全北高校) ◇曺明烈(全北南中學校) ◇李寧鎭(上同) ◇尹碩欽(市民文具商) ◇李昌煥(市民文具商) ◇金完洙(道山林部)

李助敎授一年

今年初엔韓國戲曲도公演

美국 七月에 美國 交換敎授로 渡 美하여 『노스·캐로라이나』 大學校에서 『英美劇』을 研究中이던 本 大學 英文科出身 李根三 助敎授(本校 英文科出身)는 一年餘에 걸쳐 所定의 研究課程을 成就하는데 同大學의 傳統 한硬 同大學의 實驗劇會 에 자원하는 『졸레이』 메이커 『써어리』 第一八一回 學 位를 完 授與하였다 지난 一月十六·七 兩日間 李根三助敎授가 『끝없는 실머리』를 上演하여 一大센세 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끝없는 실머리』는 同 劇會의 『스테이지』 를 에 依하여 演出 되었고 美國人學生 男 女俳優들이 엘버가되어

東日教壇

退耕 權相老

(五)箕子는「해지」는「해아지」이다

箕子의 姓은 子氏요 名은 胥餘(徐盈)인데 紂의 諸父(熊兄이란말도 있다)라 箕땅에 子爵을 받었으므로 箕子라고 한다 周武王이 殷을 처서 紂을 滅하고 天下를 차지하니 殷의 宗社는 드디어 亡한지라 微子는 祭器를 안고 그때 武王이 箕子를 釋放하고 道를 물으매 『箕子가 武王을 爲하여 洪範九疇를 베푸러주고 因하여 朝鮮으로 避入하였는데 武王이 늘러 箕子를 朝鮮에 封하였다는 것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 淸朝의 魏世徵이는 『箕子封朝鮮論』을 지었으니 그中에 一二節을 든다면 『武王이 取天下로써 利를 삼지 않었거니 箕子가 어찌 朝鮮에 受封하므로써 榮을삼았으랴 그러나 箕子가 受封하고 靡聽치 않는것은 武王이 中國民으로하여금紂에게塗毒되는것을 참지못하였으니 箕子인들 어찌참아 中國에 거까운 朝鮮으로 하여금 仁義를 알지못하여 禽獸와 다름이 없게할 수 있으랴 한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武王이 箕子를 薄하게 待接한것이다. 왜냐하면 太公·周公은 모두中國에 있어서 方伯連帥가 되여 하면서 箕子는 洪範으로 하여금 周室에 輔政하게 하였는데 夷狄의 禽獸를 敎하고 王道를 가르쳐 이의 땅에 封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武王이 道를 尊하지 않었으랴 같이 비오기를 翹首苦待하는것이 어데에 基因하는것이며 어떻게 해야만 解決할것인가에 對한 卒澈한 硏究와 뜨거운 情熱을 가질만한 同胞이기도하다 農事를 勸하는 것은 그들 農民이 急優하고 都市를 憧憬하여 離農思想을 鼓吹하자는 데에 意義가 있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戰後의 오늘에도 農家 貸債가 크지않을가 한다 特히 經濟學徒로서는 韓國農業의 後進性과 農村의 貧困에 關하여 우리나라 農業의 停滯된 原因은 이러한 資本의 一般的 法則에도 基因되는 것이지만 封建時代 朝鮮 王室의 財政과 雨順風調의 自然的인 制約이 적고 資本의 循環이 빠르고 大經營의 優越性이 顯著하여 이러한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은 農業보다는 商業에 投下되는 것이니 資本主義社會에서는 農業이 後進되지 않을수 없게된다 우리나라 農業이 停滯된 原因은 이러한 資本의 一般的 法則에도 基因되는 것이지만 封建王室의 財政과 雨順風調의 自然的인 制約이 적고 資本의 循環이 빠르고 大經營의 優越性이 顯著하여 이러한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은 農業보다는 商業에 投下되는 것이니 資本主義社會에서는 農業이 後進되지 않을수 없게된다 우리나라 農業의 後進性과 農村의 貧困은 이러한 勸農行事만 生産意慾을 일마나 昂揚시킬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勸農日을 맞을 애 우리들은 韓國의 農業과 農村을 우리들의 生活과 聯絡시키여 서생각해보는것이 더 意義가 크지않을가 한다 特히 經濟學徒로서는 韓國農業의 後進性과 農村의 貧困은 하나 이렇게보면 勸農이 大公·周公의 遺業이라 稀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農事를 天

勸農行事의 再檢討

朴根昌

지난六月十五日은 第十回의 勸農日로서 이날은 內外貴賓들이 式에 參加하고 날을 벗그 모도 심어보는날이다. 이러한 勸農式은 羅時代부터 내려온 風習이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重農思想을 鼓吹하자는데에 意義가 있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비오기를 翹首苦待하는 것이 어데에 基因하는것이며 어떻게 해야만 解決할것인가에 對한 卒澈한 硏究와 뜨거운 情熱을 가질만한 同胞이기도하다 農事를 勸하는 것은 그들 農民이 急優하고 都市를 憧憬하여 離農思想을 鼓吹하자는 것이 아니라 後進國自體의 經濟的 條件이나 歷史的 條件만 가지고서는 解明할수 없다는 先進國과의 關係와 特殊한 點을 經濟學徒들이 硏明하여 現象을 究明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現象과 本質을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다 現象과 本質을 科學의 任務는 그 自體 硏究하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後進國의 經濟的 條件이나 歷史的 條件만 가지고서는 後進國自體의 自然的 條件만 가지고서는 解明할수 없다는 先進國과의 關係와 特殊한 點을 經濟學徒들이 硏明하여 現象을 究明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現象과 本質을 一致하지 않기 때문이다 現象과 本質을 科學의 任務는 그 自體 硏究하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後進國의 經濟的 條件이나 歷史的 條件만 가지고서는 後進國自體의 自然的 條件이나 歷史

現實政治와 政治學

—政治學은 現實科學이여야 한다—

鄭 允 武

(一)

歷史上 오늘날과같이 人間의 生活이 政治에 影響을받는때는없다고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一般的으로 生活水準의 向上, 敎育의 普及을 背景으로하여 소위 普通·平等選擧가實現됨에따라 政治는 敎養과·財産있는 市民의 獨占物이 아니게되며國民全般이 政治의 領域에 登場케되었는것이다 이에對應하여 國家의活動領域도 단지 財産保護의 範圍를 넘어 人間人格의 必要되는 生活을 維持·擁護하는 社會活動領域에 擴大되게 이르른것이다 뿐만아니라 各種의 社會集團이나 壓力團體等 所謂 私的政府(Private Government)의 登場과 그競爭에 依하여 여태까지 外部的動員으로부터 守備되어온 個個人의 人格構造의 深層에까지도 이젠 政治化되게되었는것이다 實로 그의 모-든 人間行爲가 政治的인것이 되는 이러한 現代的意味에서 政治學者 Politically Effective)行爲이란 現代生活의 特質로써 政治化의 問題는비록 여러面에있어스스로의 歷史的 過程을 밟아고 있을지라도 國際政治의 支配現象으로써 壓倒的影響力을 가지게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政治學의 現實에따라 敎養

大學과文學

—아카데미즘과 쩌날리즘에 對하여—

李哲範

(一)

편집자의 부탁은 大學에서의 文學活動과 一般文壇과의 關係를 外國의 例와 比較하면서 써달라는 것인데 그點에 대하여 그리 않아서 爲先 『大學과文學』이라고 題目을 부치놓고 마땅한 題目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들을 느낄때 마다 그들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感識하게 된다 美國만 하더라도 美國 學界·文學界의 動向을 살필라면 一般雜誌보다도 爲先 各大學에서나오는 『레뷰』를 들춰야만 했던것이고 美國의 學界·文學界의 선리가 바로 그大學에서 發刊되는 雜誌였던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하고 그렇지 않다 반部門은고 文學界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경우를 따질려면 一般雜誌를 보아야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두렷한事實은 美國의 各大學에서나오는 雜誌는 이즘 나의 學派乃至는 專門分野의 性格을 띄게되었다 그러기때문에 『케·레뷰』는 主로 『뉴크리티시즘』이니 써 카고學派이니 하는 理由가있다 거기에 比하면 우리의 경우는 全혀 그렇지 않기때문에 소위 아카데미즘이 쩌나리즘의 침투를 받게 되는것이다 美國에서나오는 主要한 『레뷰』를 例擧해보면 Yale review. Virginia Quaterly review. Antisch review. Sewanee review. chicaga review. Oregon univ. Comparative Literature. konyon review. Southern review. Hudson review. Partisan review. 等인데 그大部分이 大學에서나오는 雜誌이다 그것이 大學이라는範圍속에 限되어있는것이 아니라 美國의 文學界·學界를 代辯해있음은 더말할必要가없다 우리의 大學에서 나오는 學報의 性格이 거의 없다는 것과 그것이 文學界·學界의 意識의 大概는 一般論的인 性格을 免치못한다 가령 批評文學分野를 따라 專門分野의 形成이 없기때문에 一般雜誌보다도 더욱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그 理由를 例擧할려면 너무나 學界의 專門分野에선 거의 너무나 구차스러울 程度이다 大學의 性格이 達하지 못한 것인데 그點에 依해서 發刊되는 學報가 그냥 講習하는수가 있는것이다 또는 그 學報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쩌나리즘에서자란 理役 文壇的 批評家가 하고있는 點이다 現役 批評家들이 말고있다하여 나쁘다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속에서 서뿔리 넌센스 쩌나리즘이 자아내는 害毒을 저본다면 우리나라에선 爲先 批評文學分野가 없다는 것이다 大學에서 己의 趣味에 맞는 사람을 選擇서 어쩌면 趣味까지도 없는 그저우연한 機會에 한두번읽다가 그냥 講習하는수가 있는것이다 또는 그 分野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쩌나리즘에서자란 理役 文壇的 批評家가 하고있는 點이다 現役 批評家들이 말고있다하여 나쁘다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속에서 서뿔리 넌센스 쩌나리즘이 자아내는 害毒을 되하기 때문이다 某大學에서 理役批評家들이 한·두時間 강의하다가 學生들의 不信任을 받고 그만두었다는 事實속에는 그들이 文學의 初步的인 概念마저도 모른다는 點이 包含되어 있으며 여기서 나는 꼬집어 말할 생각은 없다 그때 나의 學派乃至는 專門分野의 性格을 띄게되었다 그러기때문에 『케·레뷰』는 主로 『뉴크리티시즘』이니 써 카고學派이니 하는 理由가있다 거기에 比하면 우리의 경우는 全혀 그렇지 않기때문에 소위 아카데미즘이 쩌나리즘의 침투를 받게 되는것이다 美國에서나오는 主要한 『레뷰』를 例擧해보면 Yale review. Virginia Quaterly review. Antisch review. Sewanee review. chicaga review. Oregon univ. Comparative Literature. konyon review. Southern review. Hudson review. Partisan review. 等인데 그大部分이 大學에서나오는 雜誌이다 그것이 大學이라는範圍속에 限되어있는것이 아니라 美國의 文學界·學界를 代辯해있음은 더말할必要가없다 우리의 大學에서 나오는 學報의 性格이 거의 없다는 것과 그것이 文學界·學界의 意識의 大概는 一般論的인 性格을 免치못한다 가령 批評文學分野를 따라 專門分野의 形成이 없기때문에 一般雜誌보다도 더욱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그 理由를 例擧할려면 너무나 學界의 專門分野에선 거의 너무나 구차스러울 程度이다 大學의 性格이 達하지 못한 것인데 그點에 依해서 發刊되는 學報가 그냥 講習하는수가 있는것이다 또는 그 學報